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1호 [루게 제25039호] 주제 104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박영식동지, 렬철성동지, 강표영동지를 비롯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의 지휘관들과 내각부총리 김용진동지가 맞이하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 인민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8월 27일 나라의



앳은 라선시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그런데 오늘 현지에서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결사판철하고야 마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것을 직접 보니 근심걱정이 다 사라지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픈 전투이지만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 땅위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제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 전으로 와닥닥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먼저 인민군대를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운명의 피줄로 간직하고 사는 인민군장병들은 구절구절마다에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이 력력히 어려있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서를 받아 안은 즉시 조국의 복변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전선을 전개하였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각급 부대 장병들은 건설전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일동안에 1,300여세대의 살림집블록벽체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콘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며 건설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함으로써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면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고 많은 량의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보내주어 인민들이 생활상안정을 찾았으며 당의 거듭되는 은정에 목이 메어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환경생 하날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본분이라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민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세대의 침수된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사업과 라선시의 전력, 체신, 철도망들에 대한 렬민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낸것은 큰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은 이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라선시에 대한 지원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태이고 미덕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낫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임으로써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그대로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전투를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건설장전역에서 창조되고 있는 기적과 위훈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